

필자의 쓰기 수준에 따른 유형별 텍스트의 화제 구조 분석 연구

이윤빈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 도구
 - 1. Lautamatti(1978)의 화제 구조 분석 방법 및 선행 연구
 - 2. 이 연구의 분석 도구: 이윤빈(2013)의 화제 구조 분석 방법
- III. 연구 방법
 - 1. 필자 집단 선정 및 텍스트 표집
 - 2. 텍스트 분석 절차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 1. 필자 집단별 정보전달적 텍스트의 화제 구조 특성
 - 2. 필자 집단별 설득적 텍스트의 화제 구조 특성
 - 3. 필자 집단별 정서표현적 텍스트의 화제 구조 특성
- V. 결론

I. 서론

이 연구는 새로운 화제 구조 분석(TSA: Topical Structure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전문 필자와 학생 필자가 쓴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에 나타난 화제 구조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전문 필자 · 상위 수준 대학생 필자 · 하위 수준 대학생 필자 집단이 작성한 정보전달적 · 설득적 · 정서표현적 텍스트에 나타난 화제 구조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텍스트의 질적 수준에 따른 유형별 텍스트의 화제 구조 특성을 밝히고, 나아가 화제 구조 분석 방법의 교육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글쓰기 교육은 능숙한 필자와 미숙한 필자의 텍스트가 분명한 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글쓰기 교육의 주요한 목적은 미숙한 필자가 능숙한 필자가 쓴 것과 같이 질적으로 우수한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글쓰기 연구자들은 텍스트의 질적 특성을 객관적 분석을 통해 밝힐 수 있는 다양한 분석 도구를 개발하여, 이를 연구 및 교육 현장에서 사용해 왔다.

이 중 북미권에서 활발히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텍스트 분석 도구로 화제 구조 분석 방법이 있다. 화제 구조 분석 방법은 텍스트에서 문장 화제들(sentence topics)이 진행되는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사용하여 전체 텍스트의 화제를 드러내는 방법이다. 문장 화제들이 이루는 구조를 도해(圖解)를 통해 쉽게 식별할 수 있고, 또한 텍스트의 조직 긴밀도를 수치적(數值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이점을 갖는다. 이 때문에 이 방법은 Lautamatti(1978)의 제안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텍스트 분석 도구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또한 다수의 연구자들이 특정한 화제 진행 유형(topical progression type)과 텍스트의 질(text quality)이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이 방법은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도구로도 활용되어 왔다.

특정한 방식으로 텍스트의 문장 화제들을 진행시키는 것이 텍스트의 높은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방법이 된다면, 이는 학생들에게 쓰기 과정에서의 인지 전략을 교육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좋은 교육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화제 구조 분석 방법을 우리의 연구 및 교육 현장에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기존 화제 구조 분석 방법이 과연 텍스트의 질을 예측하는 도구가 되는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윤빈(2013)은 한국어로 씌어진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화제 구조 분석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기존 화제 구조 분석 방법을 한국어에 적용할 때 문제가 되었던 문장 화제의 식별 방법을 제시하고, 화제 진행 유형을 새롭게 분류했다. 이윤빈(2013)은 필자 집단에 따라 텍스트에서 특정 화제 진행 유형이 빈번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나, 이때 필자 집단은 담화 종합 텍스트를 구성하는 유형에 따라 분류된 것이었고, 텍스트의 질과 화제 구조의 관계 또한 분석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윤빈(2013)이 제안한 화제 구조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어 텍스트의 화제 구조 특성을 새롭게 규명하고자 한다. 만약

질적으로 우수한 텍스트에 특정한 화제 진행 유형이 빈번히 나타난다면, 우리는 텍스트의 질을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를 확보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특정한 화제 진행 유형을 사용하여 텍스트를 작성(또는 수정)하도록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텍스트의 화제 구조 특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정보전달적 · 설득적 · 정서표현적 텍스트)를 분석하여 유형별 텍스트의 화제 구조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화제 구조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텍스트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특정한 유형의 텍스트(정보전달적 텍스트)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텍스트의 수사적 목적에 따라 필자가 화제를 다루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텍스트 유형에 따라 높은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화제 진행 유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글쓰기 교육 현장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세 가지 유형의 텍스트에 나타난 화제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텍스트 유형에 따라 높은 질을 담보하는 화제 구조가 달라지는지 여부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상위 수준 학생 필자와 하위 수준 학생 필자의 텍스트를 주로 비교해 왔던 기존의 연구 경향과 달리, 전문 필자와 학생 필자(상위 · 하위 수준)의 텍스트를 비교한다. 이는 아무리 능숙한 필자라고 해도 학생 필자는 대부분 초보 필자(novice)이기 때문에(정희모, 2011) 상위 수준 학생 필자의 텍스트만으로는 높은 질의 텍스트가 담지한 화제 구조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문 필자, 상위 수준 대학생 필자, 하위 수준 대학생 필자 집단이 작성한 세 유형의 텍스트의 화제 구조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유형별 텍스트의 질적 수준에 따라 텍스트의 화제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탐구할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문 필자, 상위 수준 대학생 필자, 하위 수준 대학생 필자 집단이 작성한 정보전달적 텍스트의 화제 구조 특성은 어떠한가?

2. 전문 필자, 상위 수준 대학생 필자, 하위 수준 대학생 필자 집단이 작성한 설득적 텍스트의 화제 구조 특성은 어떠한가?
3. 전문 필자, 상위 수준 대학생 필자, 하위 수준 대학생 필자 집단이 작성한 정서표현적 텍스트의 화제 구조 특성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 도구

1. Lautamatti(1978)의 화제 구조 분석 방법 및 선행 연구

모든 필자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라는 물음에 지속적으로 답해 나간다. 동일한 내용 지식을 가지고 동일한 수사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글을 쓰는 필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전하려는 내용의 제시 순서를 선택하여 개개의 문장들로 연결해 나가는 방식은 각기 다르다. 예컨대 로봇청소기 구입자에게 ‘로봇청소기 작동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동일한 수사적 목적을 가진 필자들이 동일한 내용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내용을 제시하는 순서와 방법은 동일하지 않다. 어떤 필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로봇청소기의 조립, 사용, 관리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반면, 다른 필자는 일정한 기준 없이 로봇청소기의 작동과 관련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사항을 떠오르는 대로 나열하기도 한다. 요컨대 글 전체의 화제, 즉 담화 화제(로봇청소기 작동법)에 대한 필자의 수사적 목적(정보전달)을 달성하기 위해 필자가 문장들의 내용을 선정하고 연결하는 방식은 서로 상이하며, 이 방식의 차이는 곧 텍스트의 구조 및 질적 수준의 차이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화제 구조 분석 방법(TSA)은 텍스트에 나타난 문장 화제들(sentence topics)의 연결 양상, 즉 화제 구조(topical structure)를 분석함으로써 필자가 ‘무엇’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진행해 나갔는가를 드러내는 방법이다. 프

라그학과의 기능적 문장관에 기초하여 Lautamatti(1978)가 제안한 이 방법은 후대 연구자들(Almaden, 2006; Carreon, 2006; Chiu, 2004; Connor & Farmer, 1987; Hoenisch, 2009; Schneider & Connor, 1990; Simpson, 2000; Witte, 1983a,b; 정희모 · 김성희, 2008; 정희모, 2011)에 의해 이론적 · 교육적 도구로서 활발히 이용되어 왔다. 이 방법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각 문장이 다루고 있는 대상, 즉 문장 화제들이 연결되는 방식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텍스트의 화제 구조를 분석한다.

Lautamatti가 분류한 문장 화제들의 연결 방식을 <예문>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병렬적 진행(P: Parallel progression) 유형이 있다. 후행 문장의 화제가 선행 문장의 화제와 의미적으로¹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예문>에서 문장(2)의 화제(‘기여입학제’)가 문장(1)의 화제(‘기여입학제’)와 동일한 것이 그 사례가 된다. 둘째는 순차적 진행(S: Sequential progression) 유형이다. 후행 문장의 화제가 선행 문장의 화제와 의미적으로 상이한 경우로, 문장(3)-(5)의 화제 진행이 이에 속한다. 셋째로, 확장된 병렬적 진행(EP: Extended Parallel progression) 유형은 선행 문장의 화제와는 상이하지만 앞서 제시된 바 있는 화제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문장(1), (2)의 화제인 ‘기여입학제’가 문장(3)-(5)의 순차적 진행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문장(7)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이 그 사례가 된다.

<예문> (1) 기여입학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2) 기여입학제란 특정 대학의 발전에 물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의 자녀에게 해당 대학의 입학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이 제도의 찬성자들은 대의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4)

1 후행 문장의 화제가 선행 문장의 화제와 상이하게 표현되었으나 의미적으로 동일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예문>의 ‘기여입학제’를 ‘그 제도’, ‘그것’과 같이 표현을 바꾸어 지칭하는 경우, 그리고 “(기여입학제는 - 생략됨)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처럼 표면적으로는 화제가 생략되었으나 선행 문장의 화제를 이어받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다. 이는 모두 병렬적 진행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들의 주장은 기여입학금이 결국 다수 학생들을 위해 환원되기에 제도의 유지 또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5) 그 근거로는 미국 우수 대학들에서 지난 10년 동안 기여입학제를 점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인 사례를 제시하곤 한다. (6) 반면, 기여입학제의 반대자들은 교육 기회의 평등권 침해를 우려한다. (7) 기여입학제가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문장 번호	화제 깊이(topical depth)					진행유형
	1	2	3	4	5	
(1)	기여입학제					
(2)	기여입학제	→				P
(3)		이 제도의 찬성자들	→			S
(4)			이들의 주장	→		S
(5)				그 근거	→	S
(6)	↓				제도의 반대자들	S
(7)	기여입학제					EP(1)

그림 1. Lautamatti(1978)의 방법으로 분석한 <예문>의 화제 구조

Lautamatti는 ‘화제 깊이(topical depth)’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텍스트의 화제 구조를 <그림 1>과 같은 2차원적 위계구조로 나타냈다. <그림 1>의 세로축은 텍스트에서 문장들이 제시되는 순서에 따른 화제들의 연결 양상을 나타내고, 가로축은 화제들이 개념적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이때 ‘화제 깊이’는 순차적 진행이 일어나 화제가 변화될 때마다 1수준씩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된다.

Lautamatti 및 그의 방법을 받아들인 연구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텍스트의 질적 수준과 관련되는 다음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다. 먼저, 이 방법은 텍스트의 담화 화제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해당 텍스트가 얼마나 초점화된 논의를 펼치고 있는지 확인하게 한다.

병렬적 진행 또는 확장된 병렬적 진행을 통해 가장 빈번히 출현하는 문장 화제가 일반적으로 해당 텍스트의 담화 화제(그림 1의 경우 ‘기여입학제’)가 되기 때문이다. Lautamatti의 방법을 사용하여 대학생 48명이 작성한 텍스트의 화제 구조와 텍스트 질의 관계를 분석한 Witte(1983a)는 높은 질의 텍스트일수록 담화 화제가 출현하는 비율이 높으며, 이는 높은 질의 텍스트가 그만큼 초점화된 논의를 펼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다음으로, 이 방법을 통해 텍스트 조직의 긴밀성 정도를 알 수 있고, 이를 수치적(數值的)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때 텍스트 조직의 긴밀성 정도는 순차적 진행의 비율과 역상관관계를 갖는다. 병렬적 진행 또는 확장된 병렬적 진행의 비율이 높은 것은 필자가 담화 화제를 비롯한 특정 문장 화제에 집중된 논의를 펼쳤다는 것을 의미하고, 순차적 진행의 비율이 높은 것은 필자의 논의 대상이 되는 화제가 분산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조직 긴밀성의 정도(조직 긴밀도)는 Spivey(1983)가 제안하고 여러 연구자들(Mathison, 1996; Mathison & Flower, 1993; Mathison & Spivey, 1993; 이윤빈, 2010; 정희모, 2011)이 활용한 공식(화제 덩이의 수/내용 단위의 수)을 적용하여 수치화할 수 있다. 이때 화제 덩이(topical chunk)란 하나의 화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한 내용 단위들의 묶음을 의미하며, 병렬적 진행에 의해 결합된다. <그림 1>의 경우, 화제 덩이는 [문장(1)(2), 문장(3), 문장(4), 문장(5), 문장(6), 문장(7)]로 구분되어 모두 6개이며, 따라서 화제 덩이의 수(6)를 내용 단위(문장수: 7)로 나눈 0.86이 <예문>의 조직 긴밀도 수치²가 된다.

조직 긴밀도 공식을 사용한 연구들은 대체로 높은 질의 텍스트일수록 낮은 긴밀도 수치를 보여 준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 예컨대 Mathison & Spivey(1993)와 이윤빈(2010)은 상관분석을 통해 대학생들이 작성한 텍

2 조직 긴밀도 수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 0에 가까울수록 조직이 긴밀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예문>을 구성하는 7개 문장의 화제가 모두 ‘기여입학제’일 경우, 조직 긴밀도는 화제 덩이의 수(1)를 내용 단위의 수(7)로 나눈 0.14가 된다.

스트의 질과 조직 긴밀도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상관
을 갖는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정희모(2011) 또한 전문 필자와 대학생 필자
의 텍스트 특성을 비교한 연구에서, 조직 긴밀도 수치가 텍스트의 질적 수준
의 차이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³

이처럼 Lautamatti(1978) 및 그의 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은 높은 질의
텍스트일수록 병렬적 진행의 비율이 높고, 순차적 진행의 비율은 낮다는 사
실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와 배치되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들도 소수이지
만 존재한다. Connor & Schneider(1988)는 ESL 필자의 영어능력시험 에세
이 답안을 분석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텍스트일수록 병렬적 진행 비율이 낮
은 대신 순차적 진행의 비율이 높다는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했다. 국내에서
도 정희모 · 김성희(2008)가 대학생 53명이 작성한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특정 화제 진행 유형의 비율이 텍스트의 질과 의미 있는 상관을 갖지는 않는
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으로, 정희모 · 김성희(2008)는 영어 텍스트
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Lautamatti의 방법을 한국어 텍스트에 적용할 때
불분명한 사항들이 있음을 지목했고, Schneider & Connor(1990)는 세 가
지 유형을 분류한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여 텍스트에 따라 제각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순차적 진행 유형이 문제가 되는데, 순차적
진행 유형 중에는 텍스트의 질을 저해하는 유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유형
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핀 〈예문〉도 그
사례가 된다. 이 텍스트는 다수의 순차적 진행을 포함하고 있어서, 조직 긴밀
성이 떨어지는(0.86) 텍스트로 분석된다. 그러나 우리는 직관적으로 〈예문〉
의 조직이 느슨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이는 이제까지 널리 사

3 정희모(2011)는 전문 필자 집단의 텍스트, 상위 수준 대학생 집단의 텍스트, 하위 수준 대
학생 집단의 텍스트의 조직 긴밀도 수치 평균값을 구했는데, 각각 0.258, 0.551, 0.598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 필자의 텍스트가 대학생 필자의 텍스트에 비해 특정 화제를 보다 많
은 내용 단위를 할애하여 다룬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용되어 온 Lautamatti의 방법이 <예문>과 같은 텍스트의 질적 특성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2. 이 연구의 분석 도구: 이윤빈(2013)의 화제 구조 분석 방법

이상에서 논의한 Lautamatti 방법의 한계에 기반하여, 이윤빈(2013)은 한국어 텍스트의 화제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다. Lautamatti(1978)의 방법과 비교할 때, 이 방법은 다음 두 가지의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Lautamatti의 방법을 한국어 텍스트에 적용하고자 할 때 문제가 되었던 ‘문장 화제’의 식별 방법을 규정했다. 둘째, 순차적 진행 유형을 세분화하여, 텍스트 질을 저해하는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을 구분했다. 또한 이에 따라, 텍스트의 도해화(圖解化) 방법을 수정했다.

이윤빈(2013)의 방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 먼저, 한국어 텍스트의 ‘문장 화제’를 식별하기 위한 단위이자 텍스트 분석 단위인 ‘문장’의 범위를 설정했다. 문장 화제는 ‘해당 문장이 다루고자 하는 대상(what the sentence is about)’을 의미하며, 어휘들의 문법적인 관계가 아닌 내용과 논리에 의해 정의(Shuy, 1982; Mathison, 1996; 이윤빈, 2010)되기에 이를 식별하는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왔다. 이윤빈(2013)에서는 먼저 ‘문장 화제’를 식별하기 위한 문장의 범위를 단문, 포유문, 종속접속문, 대등접속문을 구성하는 각 절로 규정했다. “개는 명랑하고, 고양이는 새침하다.”와 같은 대등접속문은 각 절에서 다루는 문장 화제(개, 고양이)가 동일하지 않기에 이를 구성하는 각 절을 별도의 문장으로 구분했다.

다음으로, 문장 화제의 식별을 위해 Noh(1985)와 박채화(1993)가 제안

4 이 절의 내용은 이윤빈(2013: 44-99)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새로운 사례를 사용하여 새롭게 기술한 것임을 밝혀 둔다. 또한 이윤빈(2013)에서 개발한 것은 담화 종합 텍스트 분석을 위한 분석 도구였기에, 화제 구조와 함께 진술의 유형과 성격을 함께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차이가 있다.

한 문장 화제 식별 원리(문두(文頭) 위치 기반 원리 및 맥락 기반 원리)를 도입하여 수정·보완했다. 일차적으로 문장에서 가장 왼편에 위치한 명사(구)를 ‘문장 화제’로 식별하되, 텍스트 맥락상 이를 화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非)화제 문두 요소⁵는 배제하는 원리다.

또한 Lautamatti(1978) 방법에서 단일한 것으로 규정되었던 순차적 진행(S) 유형을 세 가지로 재분류했다. 첫 번째는 의미점증-순차적 진행(S1) 유형으로, 후행 화제가 선행 화제의 의미를 구체화 또는 심화한 경우를 말한다. <예문>의 문장(3), (4), (5)가 그 사례가 된다. 예컨대 문장(4)의 화제(기여입학제도의 - 찬성자들의 - 주장)는 선행 화제(기여입학제도의 - 찬성자들)보다 의미가 한 단계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의미인접-순차적 진행(S2) 유형으로, 후행 화제가 선행 화제의 의미를 심화하지는 않지만 의미적 관련성을 가진 경우다. <예문>의 문장(6)은 그 화제(기여입학제도의 - 반대자들)가 선행 화제(기여입학제도의 - 찬성자들의 - 주장의 - 근거)의 의미를 심화하지는 않지만 의미적 관련성(대조)을 갖기에 이 유형의 사례가 된다. 세 번째는 의미무관-순차적 진행(S3)으로, 후행 화제가 선행 화제와 의미적 관련성을 갖지 않는 경우다. <예문>이 만약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는 문장(8)로 이어진다면, 독자는 ‘대한민국’이라는 화제와 선행 화제의 관련성을 인지할 수 없다. 필자의 머릿속에는 일정한 논리적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독자가 인지 가능하게 텍스트에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행 유형은 주로 미숙한 학생 필자의 텍스트에서 자주 발견된다.

이상의 방법을 적용하면, Lautamatti의 방법을 따를 때 <그림 1>과 같은 도해로 나타냈던 <예문>을 <그림 2>와 같이 새롭게 도해화할 수 있다. <그림

5 비(非)화제 문두 요소로는 장면제시어와 정보처리어가 있다. 장면제시어는 ‘문장 나머지 부분의 상황이나 배경을 제시해 주는 말’(예: ‘옛날 옛적에’, ‘내가 중학생일 때’, ‘첫째’ 등)이다. 또한 정보처리어에는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말’(예: ‘A는 ~ 주장했다.’ 등)인 정보제공어와 ‘정보에 대한 필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말’(예: ‘다음 절에서 ~ 검토하겠다.’ 등)인 태도표시어가 속한다.

	문장 번호						
	(1)	(2)	(3)	(4)	(5)	(6)	(7)
1	기여입학제	기여입학제	이 제도의	(이 제도의)	(이 제도의)	제도의	기여입학제
2			찬성자들	(찬성자들의)	(찬성자들의)	반대자들	
3				주장	그(주장의)		
4					근거		
5							
유형		P	S1	S1	S1	S2	EP(1)

그림 2. 이윤빈(2013)의 방법으로 분석한 〈예문〉의 화제 구조

2)는 이윤빈(2013)의 방법이 Lautamatti(1978)의 방법에 비해 다음 두 가지 면에서 텍스트의 특성을 타당하게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첫째,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Lautamatti가 단지 화제가 변화될 때마다 1개 수준씩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했던 ‘화제 깊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림 1〉에서는 문장(3)의 화제인 ‘이 제도의 - 찬성자들’의 화제 깊이가 수준 2로, 문장(6)의 화제인 ‘제도의 - 반대자들’의 화제 깊이가 수준5로 산정된다. 그러나 두 화제는 그 의미적 구체화의 정도가 같기 때문에 화제 깊이의 수준이 동일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다. 〈그림 2〉의 경우, 두 화제가 모두 수준2의 화제 깊이를 갖는 것으로 산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이 방법은 화제 덩이를 재설정함으로써 조직 긴밀도를 보다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한다. 〈그림 1〉에서는 하나의 화제 덩이가 병렬적 진행에 의해 결합되었지만, 〈그림 2〉에서는 병렬적 진행과 의미점중-순차적 진행에 의해 결합된다. 즉, 화제 깊이가 점차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지점을 경계로 화제 덩이가 구분된다. 이에 따라, 〈예문〉은 모두 3개의 화제 덩이(문장(1)-(5), 문장(6), 문장(7))로 구분되고, 조직 긴밀도 또한 화제 덩이(3)를 내용 단위(문장 수: 7)로 나눈 0.43으로 산정된다.

이윤빈(2013)은 대학생 필자가 담화 종합을 통해 작성한 학술적 에세이 텍스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자 집단에 따라 텍스트에서 특정 화제 진행

유형이 빈번히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텍스트 유형이나 필자 집단의 쓰기 수준에 따라 텍스트의 화제 구조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탐색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 연구에서는 이윤빈(2013)의 방법을 원용하여, 쓰기 수준이 다른 세 집단(전문 필자, 능숙한 대학생 필자, 미숙한 대학생 필자)이 작성한 세 유형(정보전달적·설득적·정서표현적)의 텍스트에 나타난 화제 구조의 특성을 고찰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필자 집단 선정 및 텍스트 표집

연구 대상이 될 필자 집단을 선정하고 유형별 텍스트를 표집하기 위해 이 연구는 정희모(2011)에서 사용한 바 있는 단선무선표집을 한 층화표집(stratified sampling) 및 목적표집(purposeful sampling) 방법을 사용했다. 학생 모집단 속에 하위 집단으로서 우수한 텍스트를 작성하는 집단과 미숙한 텍스트를 작성하는 집단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표집한 것이 전자의 방법에, 대학생 필자의 집단과 비교하기 위해 전문 필자 집단의 텍스트를 표집한 것이 후자의 방법에 속한다(정희모, 2011: 281).

먼저, A대학교 <글쓰기> 강좌에서 정보전달적·설득적·정서표현적 텍스트를 쓸 것을 요구하는 과제를 부과하는 6개 분반을 선택했다. 그리고 각 분반 담당 교강사의 추천을 받아, 과제별로 텍스트 질 점수가 상위 20%와 하위 20%에 속하는 텍스트를 수집한 뒤 이 중에서 무작위로 15편씩을 표집했다. 또한 6개 분반의 교강사와 학생들이 추천한 유형별 전문 필자⁶의 글을 수

6 유형별 텍스트를 작성한 전문 필자 명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정보전달적 텍스트: 김성신, 김현태, 권태현, 노승욱, 민송기, 신영복, 어수웅, 이동진, 장정일, 전우용, 최성진,

집하여, 이 중에서 다시 15편씩을 표집했다. 3개 필자 집단이 3개 과제 유형에 대해 쓴 텍스트를 각각 15편씩 표집했으므로,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는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총 135편이었다.

표 1. 필자 집단별 · 텍스트 유형별 분석 대상 텍스트의 수

집단 \ 텍스트	정보전달적	설득적	정서표현적	합
전문 필자	15	15	15	45
상위 대학생 필자	15	15	15	45
하위 대학생 필자	15	15	15	45
합	45	45	45	135

전문 필자 및 대학생의 유형별 텍스트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텍스트의 수사적 목적 및 형식면에서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정보 전달적 텍스트는 모두 단일 대상(사물, 현상)을 소개 또는 설명하려는 목적 하에 작성된 것이었다. 대학생 집단의 텍스트는 학생이 읽은 책이나 논문에 대해 소개할 것을 요구하는 과제, 특정 대상(예: 로봇청소기)의 사용설명서를 쓰는 과제를 받고 작성되었다. 전문 필자 집단의 텍스트 또한 책을 소개하거나 특정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었다. 이 유형 텍스트의 분량은 평균 34.55단위(약 2,200자)였다. 다음으로, 설득적 텍스트는 필자의 주장 및 견해를 논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독자를 설득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대학생 집단의 텍스트는 모두 학술 에세이였다. 전문 필자 집단의 텍스트는 칼럼, 교과서에 수록된 논설문, 그리고 학술논문의 서론 부분⁷으로 구성되

최재봉, 표정훈, 한현우, 홍성욱. (2)설득적 텍스트: 강준만, 권보드래, 김종구, 김종엽, 김종철, 김현주, 노명완, 박노자, 도정일, 성재호, 안선희, 이명원, 이범, 정희모, 진준권. (3)정서 표현적 텍스트: 강경, 김소연, 김연수(2편), 김영하(2편), 김형경, 김훈, 문태준, 박완서, 윤대녕, 이광호, 정호승(2편), 함민복.

7 학술논문의 서론은 필자가 해당 연구의 목적 및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학문공동체 집단의 독자에게 설득하려는 목적 하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설득적 텍스트의 범주에 포함했다.

었다. 이 유형 텍스트의 분량은 평균 38.99단위(약 2,500자)였다. 마지막으로, 정서표현적 텍스트는 필자의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었다. 대학생 집단은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한 순간” 또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에 대해 서술하라는 자기탐색 글쓰기 과제를 받고 텍스트를 작성했다. 전문 필자 집단의 텍스트는 대체로 소설가나 시인이 쓴 짧은 분량의 수필이었다. 텍스트 분량은 평균 26.53단위(약 1,700자)였다.

2. 텍스트 분석 절차

표집한 135편의 텍스트는 II-2장에서 검토한 이윤빈(2013)의 화제 구조 분석 방법에 의거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분석⁸했다.

표 2. 텍스트 분석 절차

절차	분석 내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텍스트를 분석 단위인 문장으로 나눈다. (대등접속문은 접속어를 기준으로 분할)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 화제를 식별한다. (문두 위치 기반, 맥락 기반 원리 적용)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 화제의 진행 유형을 확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병렬적): 후행 화제가 선행 화제와 의미적으로 동일 - S1(의미점중-순차적): 후행 화제가 선행 화제의 의미를 심화 - S2(의미인접-순차적): 후행 화제가 선행 화제와 의미적 관련 - S3(의미무관-순차적): 후행 화제가 선행 화제와 의미 무관 - EP(확장된 병렬적): 앞선 맥락에서 나타났던 화제가 재출현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제 깊이 평균값을 산정한다. • 화제 덩이의 수를 산정한다. (P와 S1에 의해 결합되고, S2, S3, EP에 의해 분할)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긴밀도를 계산한다. (화제 덩이의 수/내용 단위의 수)

8 분석은 연구자가 담당했고, 별도의 평가자 1인이 11%(15편: 유형별 5편)의 텍스트를 함께 분석하여 상호 대조 검토를 수행했다. 평가자 1인은 대학에서 3년째 글쓰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였다. 상호 대조 검토 결과, 두 분석자의 분석은 89.5% 수준에서 일치했다.

위 절차에 따라, 각 텍스트는 단위 수, 화제 깊이, 조직 긴밀도, P(병렬적 진행 유형) 비율, S1(의미점중-순차적 진행 유형) 비율, S2(의미인접-순차적 진행 유형) 비율, S3(의미무관-순차적 진행 유형) 비율, EP(확장된 병렬적 진행 유형) 비율이라는 8개 척도에 대한 값을 가졌다. 텍스트별 각 척도에 대한 값을 도출한 이후에는 텍스트 유형별-필자 집단별 평균값을 산정했다. 이 연구가 목적인바, 전문 필자와 대학생 필자 집단이 작성한 유형별 텍스트의 화제 구조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필자 집단별 정보전달적 텍스트의 화제 구조 특성

전문 필자, 상위 수준 대학생 필자, 하위 수준 대학생 필자 집단이 작성한 정보전달적 텍스트에 나타난 화제 구조를 8개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집단별 평균값을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필자 집단별 정보전달적 텍스트의 화제 구조 수치 평균

	1. 전문필자	2. 상위학생	3. 하위학생	유형평균
(a) 단위 수	36.50	34.56	32.58	34.55
(b) 화제 깊이	1.57	1.62	1.21	1.47
(c) 조직긴밀도	0.45	0.45	0.56	0.49
(d) P 비율 (개수)	41.55 (14.75)	38.07 (13.44)	34.36 (10.85)	37.99 (13.01)
(e) S1 비율 (개수)	16.20 (5.75)	16.57 (5.56)	11.34 (3.58)	14.70 (4.96)
(f) S2 비율 (개수)	24.65 (8.75)	30.47 (9.56)	43.00 (13.58)	32.70 (10.63)
(g) S3 비율 (개수)	0.00 (0.00)	1.31 (0.44)	3.13 (0.99)	1.48 (0.48)

(h)EP 비율 (개수)	17.61 (6.25)	13.59 (4.56)	8.17 (2.58)	13.12 (4.46)
------------------	------------------------	-----------------	----------------	-----------------

먼저, <표 3>의 가장 우측에 있는 세 집단의 평균값을 통해 정보전달적 텍스트 유형의 전반적인 화제 구조 양상을 살펴보면, 정보전달적 텍스트는 전반적으로 화제 깊이가 얇고(1.47), P(병렬적 진행) 및 S2(순차적-의미인접 진행)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P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37.99)은 이 유형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정보전달적 텍스트가 모두 단일 대상(사물,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수사적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⁹ 하위 학생 집단의 텍스트 일부를 제외하면, 이 유형 텍스트에서는 대체로 담화 화제가 연속적으로 출현(P)하는 양상이 빈번히 나타났다.

다음으로, 필자 집단별 화제 구조 양상을 보면, 화제 깊이와 조직 긴밀도는 전문 필자 집단과 상위 학생 집단이 하위 학생 집단에 비해 화제가 깊고 조직이 긴밀한 텍스트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반면 화제 진행 유형의 경우, S1(순차적-의미점증 진행)을 제외한 전(全) 유형에서 필자의 쓰기 수준과 화제 진행 유형 비율이 비례 또는 반비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즉, 필자의 쓰기 수준이 높을수록 P와 EP(확장된 병렬적 진행) 유형의 비율이 높은 반면, S2와 S3(순차적-의미무관 진행)의 비율은 낮았다.

특히, 전문 필자 집단과 하위 학생 집단의 텍스트는 EP와 S2 유형 비율에서 매우 뚜렷한 대조적 양상을 보였다. 전문 필자 집단은 대체로 담화 화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다가(P: 41.55), 필요에 의해 화제를 구체화(S1: 16.20)

9 만약 두 대상을 비교·대조함으로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수사적 목적으로 삼은 정보전달적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면 <표>에 비하여 S2와 EP의 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났을 것이다. 예컨대 “개[1]는 외향적이지만 고양이[1: S2]는 내향적이다. 또한 개[1: EP]는…”과 같은 구조의 문장이 빈번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결과는 단일 대상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전달적 텍스트라는 과제 및 표집 변인의 효과를 전제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또는 변화(S2: 24.65)시키더라도 곧바로 논의 중이었던 담화 화제로 회귀하는 양상을 빈번히(EP: 17.61) 나타냈다. 반면, 하위 학생 집단은 하나의 화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며 그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제공하기보다는(P: 34.36) 화제를 매우 빈번히 교체(S2: 43.00)했고, 선행 화제로의 회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EP: 8.17). 또한 전문 필자 집단이 텍스트의 중심이 되는 담화 화제로 회귀한다면, 하위 학생 집단은 지엽적인 화제로 회귀하는 대조적 양상을 보였다.

[A] (1) 정상과학 시기에 패러다임[1]은 과학자 공동체에 공유된 것이며, (2) 패러다임[1: P]은)¹⁰ 이 공동체에 풍부한 자원을 제공한다. (3) 먼저 패러다임[1: P]은 과학자 공동체를 구성하는 과학자들에게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방법을 주며, (4) 패러다임[1: P]은 어떤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 (5) 또 패러다임[1: P]은 표준적 방법에 의해 중요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며, (6) 패러다임[1: P]은 실험과 측정에도 의미를 부여한다. (7) 과학자들[1: S2]은 자신의 관찰과 이론이 일치하도록 실험과 이론의 정확성을 증진시키고 (8) 과학자들[1: P]은 더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범위를 확장하며, (9) 과학자들[1: P]은 상수의 값을 더 정확하게 결정하고, (10) 과학자들[1: P]은 패러다임을 명료하게 하는 수량적 법칙을 수립한다. (중략) (22)한두 개의 변칙이 출현한다고 패러다임[1: EP(1)]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 전문 필자 3(홍성욱 서울대 교수), 「과학 혁명의 구조」(부분)

[B] (1) 이 논문[1]은 경제학 논문 중에서 김주영, 한순구의 「인접 중학교의 특목고 진학률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소논문이다. (2) 이 논문[1: P]은 제목 그대로, 중학교의 특목고 진학률이 아파트 가격과 어떤 관계가 있는

10 이하 모든 예문에서 괄호는 문장에서 표면적으로 생략된 화제를 복원하여 표시했음을 나타낸다. 또한 [1: P]과 같이 [화제 깊이: 진행 유형]을 표시했다. EP(1)은 단위1의 화제가 재출현함을 뜻한다.

지 분석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널리 알려진 것처럼 한국[1: S2]은 전통적으로 뜨거운 교육열을 자랑하는 나라다. (4) 지난 주 SNL[1: S3]에서는 임산부보다 고3이 자리를 양보받아야 한다는 패러디가 나오기도 했다. (5) 그래서 한국의-부모들[2: S2]은 아파트의 선택까지도 교육을 위해 하곤 한다. (6) 아파트[1: S2]가 단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학군을 배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7) 대표적으로 특목고-진학률[2: S2]에 주목할 수 있다. (8) 특목고[1: S2]는 대부분의 중학생들과 부모들의 로망이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9) 특목고의-커트라인[2: S1]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중략) (17) SNL[1: EP(4)]은 또 다른 패러디를 만들게 될 것이다.

— 하위 학생 필자 11, 「내가 읽은 경제학 소논문」(부분)

전문 필자 3과 하위 학생 필자 11이 쓴 정보전달적 텍스트는 이상의 특성을 잘 보여 준다. 전문 필자가 쓴 텍스트 [A]는 토머스 쿤의 『과학 혁명의 구조』의 내용을 ‘패러다임’이라는 중심 개념을 통해 설명한 글이다. [A]는 담화 화제인 ‘패러다임’을 연속적인(P) 문장 화제로 삼아, 이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단위(7)–(10)에서 ‘과학자들’로 화제가 변화(S2)되었으나, 단위(22)에서 ‘패러다임’은 다시 나타나며(EP),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출현한다. 반면, 하위 학생 필자가 쓴 [B]는 자신이 읽은 경제학 논문의 내용을 소개한 글로서, [A]와 대조적 양상을 보인다. [B]에서는 9개 단위 안에서 ‘이 논문-한국-SNL-한국의 부모들-아파트-특목고 진학률-특목고-특목고 커트라인’으로 7회나 화제가 교체(S2, 3)된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B]가 다루고자 하는 담화 화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우며, 단위(17)에서 앞선 화제로의 회귀(EP)가 일어나지만, 이 화제(SNL: TV프로그램)는 해당 경제학 논문을 소개하는 데 있어 지엽적인 화제에 불과하다.

요컨대 <표 3>과 예문은 필자의 쓰기 수준이 높을수록 설명 대상이 되는 담화 화제에 보다 집중된(focused) 논의를 전개하는 정보전달적 텍스트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곧이어 살펴볼 설득적 텍스트와 달리, 정보전

달적 텍스트에서는 화제 깊이가 알아도 텍스트 질의 수준이 높은 경우가 빈번히 나타났다. 화제 자체를 구체화(S1)함으로써가 아닌 담화 화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P, EP) 그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이 텍스트의 높은 질을 확보하는 관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의 쓰기 수준이 낮을수록 담화 화제를 긴 호흡으로 다루지 못하고 빈번히 화제를 교체시켜 담화 화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담화 화제가 아닌 지엽적 화제로 회귀(EP)하여 초점에서 벗어난 논의를 전개했다. 그러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정보전달 텍스트 쓰기 교육을 할 때에는 필자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초점화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가를 화제 구조 분석 방법을 통해 점검하게 하고, 불필요한 화제 변화(S2)와 회귀(EP)를 줄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필자 집단별 설득적 텍스트의 화제 구조 특성

〈표 4〉는 전문 필자, 상위 수준 대학생 필자, 하위 수준 대학생 필자 집단이 작성한 설득적 텍스트에 나타난 화제 구조를 분석하여 집단별 평균값을 제시한 것이다.

표 4. 필자 집단별 설득적 텍스트의 화제 구조 수치 평균

	1. 전문필자	2. 상위학생	3. 하위학생	유형평균
(a) 단위 수	44.40	39.75	32.83	38.99
(b) 화제 깊이	2.52	2.24	1.20	1.99
(c) 조직긴밀도	0.36	0.41	0.61	0.46
(d) P 비율 (개수)	38.96 (17.30)	36.77 (14.25)	28.02 (8.92)	34.58 (13.49)
(e) S1 비율 (개수)	26.04 (11.30)	23.87 (9.25)	12.82 (4.08)	20.91 (8.21)
(f) S2 비율 (개수)	20.65 (8.96)	26.45 (10.25)	45.30 (14.42)	30.80 (11.21)
(g) S3 비율 (개수)	0.00 (0.00)	1.94 (0.75)	5.50 (1.75)	2.48 (0.83)

(h)EP 비율 (개수)	13.46 (5.84)	10.97 (4.25)	8.89 (2.83)	11.11 (4.31)
------------------	-----------------	-----------------	----------------	-----------------

〈표 4〉 우측의 유형 평균값을 보면, 설득적 텍스트는 전반적으로 타 유형 텍스트에 비해 화제 깊이가 깊고(1.99), 특히 S1(순차적-의미점증 진행)의 비율이 높게(20.91) 나타난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주목된다. 곧이어 살펴볼겠지만, 하위 학생 집단의 텍스트 일부를 제외하면 이 유형 텍스트가 필자의 주장이나 견해를 논리적·단계적으로 논증해 나가는 과정에서 복수의 화제를 점차 구체화(S1)하는 방식으로 전개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필자 집단별 화제 구조 특성을 살펴보면, 설득적 텍스트는 모든 유형의 텍스트 중에서 필자의 쓰기 수준과 척도별 분석 결과 값이 가장 명확히 비례 또는 반비례하는 양상을 드러냈다. 즉, 필자의 쓰기 수준이 높을수록 단위 수, 화제 깊이, P, S1, EP(확장된 병렬적 진행)의 비율이 높게, S2(순차적-의미인접 진행)와 S3(순차적-의미무관 진행)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 전(全) 척도에서 필자의 쓰기 수준별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전문 필자와 하위 학생 집단은 S1, S2, EP의 비율에서 뚜렷한 대조 양상을 보였다. 전문 필자 집단의 텍스트는 하위 학생 집단의 텍스트에 비해 S1의 비율이 2배 이상 높고(26.04>12.82) EP의 비율도 매우 높은(13.46>8.89) 반면, 하위 학생 집단의 텍스트는 전문 필자 집단의 텍스트에 비해 S2의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45.30>20.65). 또한 전문 필자 집단의 텍스트에서는 S1의 비율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화제 깊이’의 수치가 하위 학생 집단의 텍스트에 비해 2배 이상(2.52>1.20) 깊게 나타났고, 반대로 S2의 비율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조직 긴밀도 수치는 1/2(0.36<0.6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쓰기 수준이 높은 필자와 낮은 필자가 자신의 주장·견해를 개진하는 방식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 필자의 경우, 자신이 제시하고자 하는 주장·견해를 이끌어 내거나(미괄식 구성) 또는

제시한 주장·견해를 논증하기 위해(두괄식 구성) 다양한 화제를 단계적으로 구체화(S1)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며, 또한 적재적소에서 담화 화제를 환기(EP)하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구성했다 반면, 하위 학생 필자는 대체로 자신의 주장·견해와 관련된 지엽적 내용들을 떠오르는 대로 나열하여 잦은 화제 교체(S2)를 보였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장·견해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A] (1)대학에서 글쓰기 교육(대학의-글쓰기 교육)[2]이 본격화된 지 10년 남짓 된다. (2)이전에도 (대학의-글쓰기 교육[2: P])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3)(대학의-글쓰기 교육[2: P])은 교양국어 편제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텍스트 산출에 치중했다. (4)당시의 대학 글쓰기 교육(대학의-글쓰기 교육-2000년 이전[3: S1])은 독서나 읽기에 수반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글쓰기 교육 이론에 의해 교수학습을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 (5)따라서 글쓰기 교수 방법(대학의-글쓰기 교육-2000년 이전-방법)[4: S1]이라고 딱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다. (6)반면에 2000년 이후의 대학 글쓰기 교육(대학의-글쓰기 교육-2000년 이후)[3: S2]은 쓰기 교육을 보다 전문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욕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7)대학에서의-쓰기 교육[2: EP(1)]이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창의적 학문 생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비로소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 전문 필자 8(정희모 연세대 교수), 「대학 글쓰기 교육 목표와 글쓰기 교재」(부분)

[B] (1)인터넷의-발견[2]은 인류의 가장 역사적인 발견이다. (2)세상을 연결하게 해 주는 인터넷의-발견[2: P]은 그 안의 새로운 세상, 사이버 공간의 발견과도 같다. (3)콜롬버스의-발견[2: S2]은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지역을 찾아낸 것에서 그쳤지만 (4)인터넷[1: S2]은 세계 각국과의 교류를 수월케 해 주었다. (5)그러나 사람들[1: S2]은 인터넷을 발견한 대가로 지금 많은 문제점과 무질서를 경험하고 있다. (6)특히 익명성[1: S2]은 이 공간만이 갖고 있는 특이한 성격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7)사람들[1: EP(5)]은 자신의 성, 나이를 자기 멋대로 설정하여 자신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거르지 않고 내뱉고 있다. (7)(사

람들[1: P]은) 정체성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 하위 학생 필자 3, 「사이버 공간 안에서 실명제도가 필요하다」(부분)

전문 필자 8과 하위 학생 필자 3의 사례는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 준다. 전문 필자가 쓴 텍스트 [A]는 「대학 글쓰기 교육 목표와 글쓰기 교재」라는 논문의 서론으로서, 독자로 하여금 ‘대학 글쓰기 교재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납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필자는 담화 화제인 ‘대학 글쓰기 교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기 위한 작업의 첫 단계로서 ‘대학 글쓰기 교육’이라는 화제를 점차 구체화(S1)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후, ‘대학’, ‘(대학의-)글쓰기센터’와 같은 또 다른 화제들에 대한 논의를 거쳐, ‘대학 글쓰기 교재’라는 담화 화제 및 그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한 뒤에는, 텍스트가 종결될 때까지 ‘대학 글쓰기 교재’라는 담화 화제를 지속적으로 환기(EP)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하위 필자가 쓴 텍스트 [B]는 ‘사이버 공간 안에서 실명제도의 필요성’을 독자에게 납득시키고자 하지만 [A]와는 변별되는 화제 구조 양상을 드러낸다. 7개 단위 안에서 ‘인터넷의 발견-콜럼버스의 발견-인터넷-사람들-익명성’으로 이어지는 짝은 화제 교체(S2)가 일어나며, 어떤 화제도 단계적으로 구체화(S1)되어 심도 있게 탐구되지 않는다. 자연히, [B]의 담화 화제인 ‘실명제도’는 독자가 납득 가능한 단계들을 거쳐서가 아니라 갑자기 제시되며, 이후에도 거의 환기(EP)되지 않는다.

요약하면, <표 4> 및 예문은 필자의 쓰기 수준이 높을수록 필자의 주장이나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 복수의 문장 화제들을 단계적으로 구체화(S1)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설득적 텍스트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반면, 필자의 쓰기 수준이 낮을수록 정보전달적 텍스트에서와 마찬가지로 불분명한 목적 하에 화제를 자주 교체(S2)하고, 그 과정에서 맥락과 무관한 화제를 제시(S3)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담화 화제에 대한 필자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 화제들을 단계적으로

구체화(S1)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 화제 구조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된 전문 필자의 텍스트 화제 구조 사례를 제시하고, 학생 필자 자신의 텍스트에 나타난 화제들을 재구조화하도록 지도하는 일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3. 필자 집단별 정서표현적 텍스트의 화제 구조 특성

마지막으로, 전문 필자, 상위 수준 대학생 필자, 하위 수준 대학생 필자 집단이 작성한 정서표현적 텍스트에 나타난 화제 구조의 집단별 분석 값을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필자 집단별 정서표현적 텍스트의 화제 구조 수치 평균

	1. 전문필자	2. 상위학생	3. 하위학생	유형평균
(a) 단위 수	26.40	28.83	24.25	26.53
(b) 화제 깊이	1.27	1.23	1.20	1.23
(c) 조직긴밀도	0.68	0.30	0.48	0.48
(d) P 비율 (개수)	24.20 (6.17)	62.88 (17.50)	50.54 (11.75)	45.87 (11.81)
(e) S1 비율 (개수)	9.80 (2.50)	8.98 (2.50)	5.38 (1.25)	8.05 (2.08)
(f) S2 비율 (개수)	52.94 (13.50)	17.36 (4.83)	31.18 (7.25)	33.83 (8.53)
(g) S3 비율 (개수)	0.00 (0.00)	0.61 (0.17)	2.15 (0.50)	0.92 (0.22)
(h) EP 비율 (개수)	13.73 (3.50)	9.59 (2.67)	11.83 (2.75)	11.72 (2.97)

먼저, <표 5> 우측의 유형 평균값을 보면 P(병렬적 진행)와 S2(순차적-의미인접)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서표현적 텍스트의 경우, 이 평균값이 유형의 특성을 유의미하게 나타낸다고 해석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 앞서 살핀 정보전달적 텍스트나 설득적 텍스트에서는 필자의 쓰기 수준에 따라 각 분석 수치들이 일관된 경향성을 보인 반면, 이 유형의 텍스트에서는 집단별 수치가 일정한 공통성 없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예컨대 앞선 두 텍스트 유형에서 필자의 쓰기 수준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던 조직 긴밀도의 경우, 이 유형에서는 [전문 필자(0.68)>하위 학생>(0.48)>상위 학생(0.30)]의 순으로 낮게 나타나 전문 필자의 텍스트가 가장 조직 긴밀성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앞선 두 텍스트 유형에서 텍스트 질이 낮을수록 그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던 S2의 비율 역시 전문 필자의 텍스트에서 가장 높게(52.94) 나타났다. 요컨대 정서표현적 텍스트에서는 필자의 쓰기 수준과 척도별 분석 값이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쓰기 수준별 세 집단의 분석 값이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전문 필자 집단과 학생 필자 집단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문 필자 집단의 텍스트에서는 S2의 비율이 매우 높게(52.94) 나타난 반면, 학생 필자 집단의 텍스트에서는 상·하위 집단 모두에서 P의 비율이 매우 높게(각각 62.88, 50.54) 나타난 것이다. 즉, 전문 필자 집단은 정서표현적 텍스트를 작성할 때 잦은 화제 변화(S2)를 보인 반면, 학생 필자 집단은 하나의 화제를 지속적으로 사용(P)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문 필자와 학생 필자가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체적 차이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학생 필자의 경우,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순간”이나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에 대해 서술함에 있어서, 주로 “나는 ...했다(/이었다)”라는 문장 형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텍스트를 작성했다. 그래서 상·하위 학생 집단의 텍스트 모두에서 ‘나’라는 문장 화제가 연속되면서(P) ‘나’의 생각·감정·행동·상태가 서술되었다. 반면, 전문 필자는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서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학생 필자와 동일한 수사적 목적을 가졌다. 그러나 ‘나’를 전면화하는 대신 다양한 화제들을 교체(S2)하여 제시함으로

써 최종적으로 ‘나’의 감성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수사적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학생 필자와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A] (1)내게 청춘[1]이란 7월 중순, 평일 오후의 테니스장 같은 이미지다. (2)뜨겁고 뜨겁고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날이라 코트[1: S2]는 거의 비어 있다. (3)땅[1: S2]에서는 햇살의 열기가 고스란히 다시 올라온다. (4)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라켓으로 공을 때리는 소리[1: S2]가 규칙적으로, 한가롭게 들려온다. (5)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조금 전까지 여름[1: S2]은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절정을 지나 여름이 내게서 막 떠나가기 시작했다고 느낀다. (6)약간의 아쉬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붙잡고 싶은 욕망은 들지 않는 그런 순간[1: S2]. (7)내게 청춘[1: EP(1)]이란 그런 것이었다.

— 전문 필자 7(소설가 김연수), 「막 청춘의 절정이 지나갔다.」(부분)

[B] (1)중학교 3학년 때 나[1]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였고, (2) 또 (나[1: P])는 하루하루 목적 없이 사는 아이였다. (3)(나[1: P])는 수업시간에는 잠을 자고 집에 돌아오면 게임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4)(나[1: P])는 학원에 가서도 친구들과 옥상에서 놀거나 게임방에서 시간을 보냈었다. (5)그러던 8월 방학 때였는데, 학원 데스크에서 한 여자에[1: S2]가 등록을 하고 있었다. (6)개[1: P]는 과고 입시반에 등록을 하려고 온 거였고 (6) (그 아이[1: P])는 좀 오글거리는 표현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해도 좋을 만큼 정말 너무 예뻐다. (7)나[1: EP(1)]는 숨이 딱 막히는 것 같았다.

— 하위 학생 필자 12,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부분)

전문 필자 7과 하위 학생 필자 12가 작성한 정서표현적 텍스트는 이러한 현상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A]는 중년이 된 전문 필자가 자신의 지나간 청춘에 대해 느끼는 정서를 서술한 것이고, [B]는 대학생이 된 학생 필자가 중학생 때 경험한 첫사랑의 정서를 회고한 것이다. 두 텍스트는 모두 지나간

‘청춘’과 ‘첫사랑’에 대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으나, 그 방식은 매우 다르다. [A]는 ‘청춘-코트-땅-소리-여름-순간-청춘’으로 다채롭게 이미지를 변화(S2)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필자가 지나간 ‘청춘’에 대해 갖는 정서를 독자에게 전달한다. 반면, [B]는 ‘나’를 전면에 내세워 필자의 생각·감정·행동·상태를 일률적으로(P) 서술한다. 단위(5)에서 첫사랑의 대상이 되는 ‘한 여자에’로 화제가 변화(S2)되기도 하나, 화제는 곧 그 아이를 보고 특정한 감정을 갖는 ‘나’로 회귀(EP)된다.

요컨대 <표 5>와 예문은 정서전달적 텍스트의 경우, 정보전달적·설득적 텍스트와는 달리 필자의 쓰기 수준과 화제 구조가 분명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사실, 그럼에도 전문 필자 집단과 학생 필자 집단의 텍스트는 문체적 차이로 인한 일정한 화제 진행상의 차이를 노정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기인하여 학생 필자 집단에게 화제를 다채롭게 변화시키는(S2) 방식으로 정서표현적 텍스트를 작성할 것을 교육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보전달적 텍스트는 특정 대상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설득적 텍스트는 필자의 주장이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필자 개인의 문체적 특성과 무관한 화제 진행 방식이 당위적 수준에서 존재할 수 있다. 반면, 필자의 주관적 정서를 표현하는 텍스트는 상대적으로 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문체의 범위가 넓으며, 필자는 다양한 문학적 표현법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여지를 갖는다. 그래서 대체로 소설가와 시인으로 구성된 전문 필자 집단은 의인법·활유법·대유법 등을 다채롭게 사용하여 화제의 변화를 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학생 필자 집단은 과제를 부과한 교수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정서를 ‘보고’하는 방식의 문체(“나는 …했다”)를 일률적으로 택해 정서표현적 텍스트가 정보전달적 텍스트의 경향을 나타내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상·하위 학생 집단의 정서표현적 텍스트 특성만을 비교할 때 <표 3>에서 살펴 상·하위 학생 집단의 정보전달적

텍스트 특성과 유사한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정서표현적 텍스트의 경우, 학생 집단에게 전문 필자 집단의 화제 구조 특성을 단일한 모범적 표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학생 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한 사례로서 제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이 연구는 필자의 쓰기 수준에 따른 유형별 텍스트의 화제 구조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Lautamatti(1978)의 방법을 수정한 이윤빈(2013)의 화제 구조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전문 필자, 상위 수준 대학생 필자, 하위 수준 대학생 필자 집단이 작성한 정보전달적·설득적·정서표현적 텍스트의 화제 구조를 분석하여 그 특성을 고찰했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전달적 텍스트에서는 필자의 쓰기 수준별 화제 구조 차이가 나타났다. 필자의 쓰기 수준이 높을수록 P(병렬적 진행)와 EP(확장된 병렬적 진행) 유형 비율이 높게, S2(순차적-의미인접 진행)와 S3(순차적-의미무관 진행)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필자의 쓰기 수준이 높을수록 설명 대상이 되는 담화 화제에 보다 초점화된 논의를 전개하는 정보전달적 텍스트를 작성하며, 반대로 쓰기 수준이 낮을수록 담화 화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빈번히 화제를 교체한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또한 필자의 쓰기 수준이 높을수록 화제를 변화시키다가도 지속적으로 담화 화제를 환기하는 양상을 보였고, 쓰기 수준이 낮을수록 지엽적 화제들을 재언급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둘째, 설득적 텍스트에서는 필자의 쓰기 수준별 화제 구조 차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 필자의 쓰기 수준이 높을수록 P, S1(의미점중-순차적 진

행), EP의 비율이 높게, S2와 S3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고, 화제 깊이가 깊게, 조직 긴밀도가 낮게(조직이 긴밀함을 의미) 나타났다. 이는 필자의 쓰기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주장·견해를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화제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반대로, 필자의 쓰기 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의 주장·견해와 관련된 단편적 내용들을 떠오르는 대로 나열하여 잦은 화제 교체를 보일 뿐 체계적으로 논의를 개진하지 못했다.

셋째, 정서표현적 텍스트에서는 필자의 쓰기 수준과 화제 구조가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문 필자 집단과 학생 필자 집단(상·하위)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문 필자 집단의 텍스트에서 S2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학생 필자 집단들에서는 공통적으로 P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전문 필자와 학생 필자가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체적 차이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었다. 전문 필자는 다양한 문학적 표현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화제들을 통해 필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반면, 학생 필자는 ‘나’를 전면화하여 교수자에게 정서를 보고하는 방식의 문체를 구사했다.

이 연구는 필자의 쓰기 수준에 따라 특정한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텍스트의 문장 화제들을 진행하는 양상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 자료에 근거하여 드러냈다. 특히, 이 연구는 기존의 화제 구조 분석 방법을 적용한 연구들(Witte, 1983a, b; Simpson, 2006)이 텍스트의 질과 순차적 진행 유형의 비율이 대체로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한 것과는 차별되는 결과를 도출했다. 즉, 순차적 진행 유형을 세분화했을 때 텍스트의 질적 수준과 그 비율이 비례하는 유형(S1)이 있는 반면, 반비례하는 유형(S3)도 있고, 또한 텍스트의 수사적 목적에 따라 질적 수준과 각기 다른 관계를 갖는 유형(S2)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한 화제 구조 분석 방법은 텍스트의 질적 특성을 밝힐 수 있는 분석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용한 교육적 도

구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쓰기 교수자들은 완성된 텍스트의 질을 직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쓰기 수준이 상이한 필자가 쓰기 과정에서 어떠한 선택들을 함으로써 질적 수준이 상이한 텍스트를 생산하는지에 대해 학생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화제 구조 분석 방법을 사용하면, 질적 수준이 높은 텍스트와 그렇지 않은 텍스트의 화제 구조 차이를 실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쓰기 과정에서 보다 매끄럽게 화제들을 연결시키도록 조력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완성한 텍스트의 화제 구조를 분석해보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정(revision)을 도울 수도 있다.

이 연구는 전문 필자와 대학생 필자의 유형별 텍스트 135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필자의 쓰기 수준에 따른 유형별 텍스트의 화제 구조 차이를 최초로 비교 분석했다는 의의를 가지며,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보다 풍요로운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중등학생 필자의 텍스트에 나타난 화제 구조 양상이나 이 연구에서와는 상이한 과제 변인 하에서 작성된 텍스트의 화제 구조 양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앞으로 다양한 필자 집단과 텍스트 유형을 대상으로 한 화제 구조 분석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14. 7. 29. 투고되었으며, 2014. 8. 6. 심사가 시작되어 2014. 8. 27.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박채화(1993), 「국어 담화의 주제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윤빈(2010), 「대학생의 학술적 비평문 쓰기 수행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제133호, 259-288, 한국어교육학회.
- _____(2013), 「담화 중합을 통한 텍스트 구성 양상 연구: 쓰기 과제 표상과 텍스트 구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희모(2011), 「대학생 쓰기 교육을 위한 텍스트 특성 비교: 대학생 필자와 전문 필자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제135호, 267-303, 한국어교육학회.
- 정희모 · 김성희(2008), 「대학생 글쓰기의 텍스트 비교 분석 연구: 능숙한 필자와 미숙한 필자의 텍스트에 나타난 특징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32집, 393-426, 국어교육학회.
- Almaden, D. O.(2006), "An analysis of the topical structure of paragraphs written by Filipino students," *The Asia-Pacific Education Research* 15(1), 127-153.
- Carreon, M. C.(2006), "Unguarded patterns of thinking: Physical and topical structure analysis of students journals," *The Asia Pacific Education Research* 15(1), 155-182.
- Connor, U. & Schneider, M.(1988), "Topical structure and writing quality: Results of an ESL study," Paper presented at the 22nd Annual TESOL Convention. Chicago.
- Hoenisch, S.(2009), "Topical structure analysis of accomplished English prose," Doctoral dissertation,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 Lautamatti, L.(1978), "Observations on the development of the topic in simplified discourse," In U. Connor & R. B. Kaplan(Eds.), *Writing across languages: Analysis of L2 text*(92-126), Reading, MA: Addison-Wesley.
- Mathison, M. A.(1996), "Writing the critique, a text about a text," *Written Communication* 13, 314-354.
- Mathison, M. A., & Spivey, N. N.(1993), "Writing from Academic Sources-Authorship in Writing the Critique," Project 9(Study 2, Phase 1). Final Report, Center for the Study of Writing and Literacy,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and Carnegie Mellon University, PA.
- Noh, M. Y.(1985), "Effects of topical structure on discourse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 Schneider, M. & Connor, U.(1990), "Analyzing topical structure in ESL essays: Not all topics are equal,"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2(4), 411-427.
- Shuy, R. W.(1982), "Topic as the unit of analysis in a criminal law case," In D. Tannen(Ed.), *Analyzing discourse: Text and talk*(113-126),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Simpson, J. M.(2000), "Topical structure analysis of academic paragraphs in English and Spanish,"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9(3), 293-309.
- Spivey, N. N.(1983), "Discourse synthesis: Constructing texts in reading and writ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Witte, S. P.(1983a), "Topical structure and writing quality," *Visible Language* 17, 177-

205.

(1983b), "Topical structure and revision,"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34(3), 313-341.

필자의 쓰기 수준에 따른 유형별 텍스트의 화제 구조 분석 연구

이윤빈

이 연구는 필자의 쓰기 수준에 따른 유형별 텍스트의 화제 구조 특성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Lautamatti(1978)의 방법을 수정한 이윤빈(2013)의 화제 구조 분석(TSA) 방법을 사용하여 전문 필자, 상위 수준 대학생 필자, 하위 수준 대학생 필자 집단이 작성한 정보전달적·설득적·정서표현적 텍스트의 화제 구조를 분석하여 그 특성을 고찰했다.

연구 결과, 필자의 쓰기 수준에 따라 특정한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텍스트의 문장 화제들을 진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정보전달적·설득적 텍스트의 경우, 필자의 쓰기 수준과 텍스트에 나타난 특정 화제 진행 유형의 비율이 단계적으로 비례 또는 반비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정서표현적 텍스트에서는 필자의 쓰기 수준과 화제 구조가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문 필자 집단과 학생 집단(상·하위)의 문체적 특성으로 인한 화제 구조 차이가 발생했다.

이 연구는 필자의 쓰기 수준에 따라 유형별 텍스트의 화제 구조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실증적 자료에 근거하여 밝혔다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한 화제 구조 분석 방법은 텍스트의 질적 특성을 밝히는 분석 도구이자, 학생들의 쓰기 및 수정 과정을 도울 수 있는 교육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핵심어 텍스트 분석, 화제 구조 분석, 필자의 쓰기 수준, 정보전달적 텍스트, 설득적 텍스트, 정서표현적 텍스트

ABSTRACT

A Study on Topical Structure Analysis of Text by Writer's Level of Writing

Lee Yunbin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opical structure characteristic of types of text by writer's level of writing. For this, topical structure of informative, persuasive, expressive text written by professional writer, high level college student writer, low level college student writer group using a new topical structure analysis method. Upon investigation, there is a difference in method of proceeding sentence topics of text to achieve certain communication purpose by writer's level of writing. In case of informative, persuasive text, writer's level of writing and the ratio of certain topical progression type in text were directly or inversely proportionate step by step. In expressive text, text structure difference by the stylistic traits of professional writer group and student group occurre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vealed the fact that text structure of text vary by writer's level of writing based on positive data. Moreover, text structure analysis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an analysis tool revealing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text, and can be used as an educational tool that can help writing and revising process of students.

KEYWORDS Text Analysis, Topical Structure Analysis, Writer's Level of Writing, Informative Text, Persuasive Text, Expressive Text